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7 **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佛日 (48X48-Acrylic on Canvas)

•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 수많은 연등이 천지를 밝혀 이땅에 빛을 줍니다. 차안의 세계도 피안의 세계도 모두 맑은 심안(心眼)으로 보면, 둘이 아닌 하나로 통하는 불어문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일체를 유심조(唯心造)하면 열반의 저 언덕이나 사바의 이쪽이나 모두가 똑같은 등불입니다.

고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7 / 5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네 종류의 수행자
처음 마음으로	11	불살생(不殺生)
꽃은 흙에서 핀다	20	생명의 향기로 넘쳐나는 천상의 현신 - 흰 연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4	스스로를 인식한 후 타인을 인식할 수 있다
아름다운 마무리	28	5월 결연 대상자 - 한영순(가명)
따뜻한 이야기	30	엄마를 달고 싶습니다
모단 에세이	32	별
古典을 읽다	34	헨리 소로우 에세이집 『월든(Walden)』
아버지와 함께한 하루	38	감동
실천하며 삽시다	41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5월 1일 발행 / 통권 266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네 종류의 수행자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떠나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글·법 정(法 頂)

대장장이네 아들 춘다가 말했다.

“위대한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애착을 떠난 분

인류의 최상인最上人

뛰어난 마부께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시오.”

스승(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춘다어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대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아니라.”

대장장이이 춘다는 말했다.

“눈을 뜬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켜 ‘도의승리자’라고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

해주세요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저에게 말씀해주세요시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떠나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神들을 포함한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을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한 진리의 말씀인

도에 의지해 살면서 스스로 억제하고

깊이 생각해서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체하지만

고집 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이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체 빠기는 사람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학식이 있고 총명한 재가在家 신도는

‘그들 네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

고 알아

그들을 통찰하여 그와 같이 보더라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청정한 이와 청정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 강론 -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열린 세상

춘다는 한문으로 순타(順陀) 준

타(准陀) 주나(周那)등으로 음역되어

있다. 그는 부처님께 최후로 공양을

올린 사람으로, 불타 전기에도 나오

는 인물이다. 여기서는 그 상황에 대

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지만 팔리어

본(대열반경)과 부처님의 생애를 비

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는 <장이함

경長阿含經>안에 든 <유행장游行

經)에는 그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부처님이 많은 수행승들과 함께 파바에 있는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가 소유한 망고나무 숲에 머물게 된다. 이때 춘다는 부처님을 뵈고 다음날 부처님과 수행승들을 공양에 초대하는데, 이 공양 끝에 네 종류의 사문(수행승)에 대한 법문을 했던 것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춘다의 집안은 대대로 대장장이였던 것 같다. 그래서 '대장장이네 아들 춘다'로 불린 것이다. 요즘 말로 하자면 금속세공을 직업으로 삼은 것

춘다가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을 공양에 초대할 것으로 보아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인도의 계급사회에서는 대장장이나 금속세공인은 천업賤業으로 여겼다. 이런 그의 초대를 부처님은 선뜻 받아들였다. 어느 때는 유녀遊女 암라팔리의 초대에 응하기도 했다. 여기

에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역사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그 당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멸시받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신적 지도자를 찾게 되고, 불타 석가모니의 행동은 그 당시 계급의 두터운 벽을 헐어버리려는 의지에 차 있었다.

그래서 계급 타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도 나온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날 때부터 귀한 사람(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천한 사람도 될 수도 있고 귀한 사람도 될 수 있다.”

〈유행경〉에 보면, 춘다의 집에서 공양을 할 때 대중 가운데 나이 많은 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는 뒤늦게 출가한 늦깎이였다. 그가 대식가여서 그랬던지 아니면 식탐食貪 때문이었든지, 그는 자기 몫 이외에 다른 그릇에다 먹음직한 음식을 더 받았다. 이를 보고 공양이 끝난 뒤

춘다가 부처님께,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법문을 청했던 것이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수행승을 두고 볼 때, 그 종류의 다양함에 우리는 착잡해지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많듯이, 먹물옷 입고 머리 깎고 중 행세하는 부류들도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중략)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도 행세, 시주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부처님의 덕화는 고사하고 도리어 부처님께 욕을 보이는 그런 승려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류들을 가리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경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말세’라는 말을 쓴다. 말세의식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나 예수님 당시에도 없지 않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릇

된 가치의식에 사로잡혀 인륜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왔을 때, 악독한 지배 세력이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혀 사는 일이 몹시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불의가 정의를 유린할 때를 가리켜 말세니 말법시대니 하는 말을 썼다.

우리가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오늘이 과연 말세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말세의식은 언제 어디서나 있게 마련이지만, 선거 유세장에 살벌한 폭력이 난무하고, 주장이나 뜻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한밤중에 거리낌없이 파괴와 살육을 하는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은 절대로 아니다.

정치가 무엇이고 국회의원이 무엇이기 세상이 이토록 시끄럽고 갈가리 찢기고 흩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무엇인가 혹 해서 미쳐 날뛰고 있는 것만 같다. 예전에 비해 우리의 살림살이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나이지고 여유가 생겼다. 그런데 사람 값은, 그리고 그 끝은 말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할 때 번듯한 집과 화려로운 가구와 편리한 가전제품들인들 어떻게 빛을 발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단지 물건의 터미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눈을 떠야 한다. 내가 내 눈을 떠서 세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남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는다.

온갖 의혹을 극복하고 세속적인 고뇌를 떠나 열반(안온, 평안)을 즐기는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한다. 또 자기 분수 밖의 탐욕을 버리고 신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한 것.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라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금속

세공인 춘다의 물음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대답하면서도 "눈 뜬 사람들은 말한다"고 한 표현이다. 불교란 어떤 특정인의 가르침이 아니고 '눈 뜬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고 눈을 뜨면 누구나 본래적인 자아를 실현할수 있다는 뜻도 된다.

그 당시 인도 사회에는 많은 사문(수행자)들이 있어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파 철학이다. 춘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직업상 여러 계층의 사문들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행자가 진짜고 사이비인지 때로는 혼란이 일어났을 법하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가 있느냐고 물을수 있는 것이다.

대중 앞에서 의례적으로 설법이나 강연을 한다고 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 세상

에서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인가를 알아서 진리를 말하고,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가릴 줄 아는 사람, 확고한 신념으로 그 어떤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중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날이 갈수록 조심스럽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 말도 없지만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어쩌다 말을 쏟아버리고 나면 내 속은 텅 빈 항아리처럼 허전하기 짝이 없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떠벌리는 일이 싫다. 아주 싫다.

글을 쓰는 일도 그렇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일어났던 광적인 지역 감정과 비이성적인 대립의식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내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인의 인성人性에 대해 새삼스럽게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대권을 잡겠다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동조자나 추종자 또는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이나라

와 겨레를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지역의 인사라 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자기네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서 원수를 대하듯 맞서서 으르렁거리던 한심스런 현실 앞에 말과 글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국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파당과 분열과 증오와 어리석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가 경전을 통해 눈 뜬 성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혜를 위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일찍이 눈을 뜬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다. 우리들 각 개인은 커다란 우주 생명의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들이다. 뿌리 없이 가지만 존재할 수 있는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서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지가 펼쳐진

다. 또한 그 가지의 생기를 통해서 뿌리는 더욱 굳게 뻗어 나간다. 그러나 가지끼리 미워하고 다룰 때 뿌리인들 성할 수 있겠는가.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란 부처님 법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진리를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몸소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 삶 자체가 진리일 때, 그는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일 수 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그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아무 근거도 없이 떠도는 말에 좌우되지 않는다. 영터리나 사이버에 속지 않을 뿐더러 진짜를 대했을지라도 거기에 얽매이거나 현혹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 눈을 맑히고 자기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청정한 이와 청정하지 않

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눈을 뜨자.

멀쩡한 내 본래의 눈이 있는데 어째서 남의 눈에만 의존하려고 하는가. 중의 종류가 많건 적건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양식을 지닌 총명한 신앙인은 비본질적인 일에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삶과 이웃과의 관계를 거듭거듭 더 낮게 고쳐가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는지, 인생의 최고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때때로 헤아려보아야 한다.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면 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가릴 수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열린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불살생(不殺生)

글·덕 일(德 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봄날씨가라서 그런지 청명하고 온도가 싱그럽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신도분들께서 초하루법회에 동참하시어 열심히 기도하신 후 마지막 예불 끝에 서로 마주 보시면서 “정불하십시오”, “부처님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덕담의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길상사 신도분들께서는 정말 너그러운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길상선원에서 매일 열심히 수행정진하시면서 초하루법회에 항상 빠짐없이 동참하시는 선원의 대중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참다운 정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

아 온 도량이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합창단 음성공양 노래 제목이 꽃이 피었구나였는데, 그 노랫말처럼 여기저기에서 꽃의 새싹들이 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상사의 봄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영춘화, 개나리부터 시작해서 조금 있으면 진달래까지 온갖 꽃들이 만발하겠죠.

흔히 불가에서는 화개견불(花開見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꽃을 보니 부처를 본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마음은 정말 청정한 부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꽃들을 보면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 또한 모두 좋아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수시로 봄맞이

상춘을 하시겠지만 올해는 더욱더 예쁜 꽃들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초하루법회때 여러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카면서 향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종교생활이란 인격에서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를 풍기도록 하려는 노력입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향기로운 인격을 갖추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꾸준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종교활동인 것입니다.

불교를 바르게 믿고 열심히 수행하면 다섯 가지 향기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분향례(五分香禮)라고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사교구인 순천 송광사에 교구종회가 있어서 직접 차를 운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순천 송광사를 오가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로드킬이라고 그러죠. 오소리, 고라니, 노루, 들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널부러져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또 서울로 오는 길에서 앞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고 고라니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도 목격하였습니다. 뛰어드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자고 일어나면 내비게이션 지도가 바뀌는 도로건설 때문에 온 국토의 야생동물들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주법계의 질서에 의해서 동물들도 똑같이 태어나는데 어찌하여 사람으로, 자동차로 인해서 그렇게 죽어 가야 하는가.

물론 도로를 건설할 때 선진국처럼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꽃이

필 때 꽃대가 올라오듯이, 봄과 가을에 결혼식이 많습니다. 인연맺기라고 그러죠! 새신랑과 새신부가 탄생하는 계절이 보통 봄과 가을이라 이때를 기해서 결혼식을 많이 올립니다. 동물들과 조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산란기가 있고, 짝짓기가 성행하게 되죠. 동물들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 강이나 늪, 바다나 논 같은 곳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이나 늪을 건너가는 동물, 바다를 건너가는 동물들을 살생하였을 때는 엄청난 과보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殺), 투(偷), 음(淫), 망(妄), 음(飮), 살생을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음주를 하지 말라. 그 오계 중에서도 불살생(不殺生) 계율을 가장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길가에 널부러져 있는, 로드킬 당해서 죽은 짐승들을 위해서, 운전자로서 길을 갈 때

항상 보리심을 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을 볼 때는 발보리심하라, 그렇게 조축(弔祝)해 주셔야 합니다.

살투음망음에서 살생을 가장 앞에 놓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렇게 가족의 행복을 그르치는 것은 대부분 불살생의 과보로 인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업보차별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생들은 열 가지 나쁜 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단명의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산목숨, 다시 말해서 산 중생을 죽이는 것, 남을 시켜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것, 죽이는 것을 찬탄하는 것,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 벼랑이나 계단, 높은 곳

에서 떨어지게 해서 죽게 하는 것, 태아를 죽이는 것, 서로 싸우게 이 간질을 해서 서로 죽게끔 만드는 것, 또 가뉘서 죽이는 것, 미운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 원수가 죽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동물이나 곤충,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단명의 과보를 받는다곤 업보차 별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보살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손자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고생했다고 손자에게도 고기를 먹이고 많은 가족들과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충남에 사시는 어떤 분도 작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시골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서울로 올려 보내어 먹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이를 위한다면, 내 손자와 손녀를 위한다면,

살생을 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이 사왓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키가 큰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번에 큰 돈을 들여서 700마리의 황소와 온갖 곤충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묶어놓고, 바라문들과 공부하는 수행자 집단을 위해서 공양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제가 주최하는 행사에 모자람이 없도록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니,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어찌 복을 감하고 죄를 짓는 행사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위하고 손자를 위해서 왜 돼지를 잡는가? 그건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명문대를 가고 고시에 합격하고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

었다면 가장 큰 복을 짓는 것은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또 스님들에게 작은 보시라도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백 마리의 동물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일으켰다는 것은, 생각(意)으로 벌써 살생을 했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죽여서 많은 분들에게 공양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입(口)으로 살생을 했고, 그리고 네가 직접 그 소들을 잡는다면 직접 몸(身)으로 죽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로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그 바라문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가 주관하는 행사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 동물들을 풀어주어라. 풀어줄 때는 꼭 숲이나 늪

이나 강이나 어디에 가서든 자유롭게 뛰어놀다가 천수를 다하거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풀어주어라.”

그러시면서 그 바라문에게 살생의 과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그 키가 큰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간 후에 살육제를 하기 위해 준비한 짐승들을 모두 풀어줍니다. 살육제는 당시에 사성대회라고 했는데 일종의 희생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제에 쓰기로 했던 황소와 염소를 포함해서 온갖 동물들을 부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을 희생하려고 했으나 내가 크게 잘못된 점을 깨닫고 너희들을 풀어주겠노라, 숲이나 늪 어디에 가서든 천수를 누리거라 하면서 모두 풀어줍니다.

모두 풀어주고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좋은 음식과 정결한 음식으로 여러분에게 공양을 올릴까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웃으시면서 당연히 가지겠다고 말씀 하시며, 정결한 음식이 차려진 곳에 가서서 법문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옛날 고대신앙에서는 동물들을 많이 죽였나 봅니다. 곤충들뿐만 아니라 암소, 황소, 물소, 개, 염소, 심지어는 사람까지 잡아서 학대를 가하고, 그 가학적인 장면을 즐기면서 깔깔깔 웃고, 그렇게 채찍질을 당한 동물들을 죽여서 고기를 먹고……. 그런 신앙이 예전 고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살생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먹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세상이 먹고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먹는 음식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20~30년 전부터 먹는 방송이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본뜬것은 모

르겠지만, 각 방송사 및 케이블채널에서도 뒤늦게 앞을 다투어 먹거리 음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농촌 지역에 노루가 창궐했는데 그 노루를 엽총으로 쏘서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또 낙지나 문어 같은 해산물을 뜨거운 물 속에 산 채로 집어넣는 장면들을 여과없이 방송으로 막 내보냅니다.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서 빙어 및 송어축제를 하는데 어린 소녀가 송어를 바라보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거 참 맛있겠지?”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매운탕 끓여먹자.”

매스미디어를 포함해서 각종 케이블TV, 방송에서 그렇게 자비심을 갖지 않고 살생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부추긴다면, 어떤 나라이든지 미래가 불확실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부탄왕국은 전 국가적으로 살생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살생의 계율을 국가적으로 지키는 나라입니다. 낚시를 한다거나 짐승을 도축하게 되면 종신형에 처합니다. 양과 소, 돼지 등의 도축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은 도살장이 없습니다. 국왕 본인의 가족들이나 국민들이 먹을 고기는 인도나 태국 등 가까운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서 먹습니다.

또 부탄왕국에 가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가 신앙생활과 접목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나뭇잎의 향을 피우면서 뭔가 진언을 외우고 있고, 또 국왕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상당히 독특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물들을 우대한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동물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놔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천수를 다해서 죽을 수 있게끔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부탄에 가면 개가 잘 짓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들은 사람이 접근하면 사납게 짖지만 부탄왕국의 개들은 짖지를 않습니다. 정말 희한하죠! 개가 맨날 잠만 잡니다. 여기 가도 자고 있고, 저기 가도 자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말로 그랬죠! 취직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뭔가 게으른 자들은 부탄의 개로 태어나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탄에서는 동물들도 천수를 누리고 죽게끔 나라차원에서 사람들이 보호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부탄에 가서 불살생의 계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순천 송광사에서 행자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순천학생청년회 회원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 스님 방생이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암호수로 방생을 다

녀왔습니다” 청년회는 학생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반청년들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방생의 공덕이 얼마나 큰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나갔습니까?” 했더니 “예, 버스 한 대로 가서 방생했습니다.” 그래서 “방생하고 나서 공양은 하고 왔는지요?” 했더니 “예, 방생하고 나서 유명한 매운탕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생하러 가서 어류를 석방해서 생명을 살피 주고, 돌아서서는 어류를 먹었다 나……. 그래서 참 우리의 생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업이라는 것, 습관이라는 것이 금방 공을 지어놓고 뒤돌아서서는 매운탕 집에 가서 살아있는 목숨을 또 끓여서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불살생의 계율은 항상 염두에 두어

야 합니다. 집안에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짐승을 잡아서 안 됩니다. 짐승들을 잡게 되면 그만한 과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짐승 중에서 뱀, 노루, 잉어, 개, 이러한 종류는 영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죽이는 행위와 죽이는 사람을 눈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찍어서 그만큼 양값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길상사도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라니기도를 하러 오시는데, 기도도 좋지만 가장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나서 기도를 하셔야만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복이 온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복을 감하는 행위

를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하루법회의 주제는 동물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때 당사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바라문의 청으로 행사 참석에 응해 주셨는데 그 후에 우파키라는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여쭙어 봅니다.

“부처님, 어떤 바라문들은 온갖 살육을 해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즐기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칭찬하고 어떤 경우에는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절대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행위만 없다면 나는 언제든지 칭찬하고 환영한다. 그러니 제발 사성제, 다시 말해서 희생제를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동물사랑이 오늘날의 불살생 계율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존귀하고, 동물들도 어류들도 곤충들도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살아 가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고, 어디에서나 로드킬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또한 곤충을 볼 때, 파리나 모기를 원치 않게 죽였을 때, 항상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보리심을 발하라는 자비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동물들, 어류들, 곤충들, 나무들에게 발보리심하라는 진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초하루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봄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겠고, 또한 꽃이 피면 피는 대로, 꽃이 지면 지는 대로, 인생의 무상함을 잘 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 불기 2561년 음력 3월 초하루 법문

(2017년 3월 28일)

생명의 향기로 넘쳐나는 천상의 현신

- 흰 연 -

글 • 김기철(도예가)

그 언제 적부터 울안 한쪽에 연꽃을 만들어 연꽃을 심고 싶었다. 물론 엉덩이 큰 여자 하나 걸터앉을 만한 웅덩이 같은 연못이라는 게 있어 거기다 수련을 심어 자줏빛 꽃과 하얀 연꽃을 즐기고는 있었지만 그것들은 개연이라고 해서 마음에 흡족한 게 못 되었다. 그러던 차에 그다지도 귀하다는 중국 황실연이 어느 절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때는 마침 연꽃이 한창 피어올라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그 향기는 온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결국 다음 해 봄에 연뿌리를 얻게 되어 미리 마련해 놓은 연못바닥에 심을 수 있었다.

사실 나의 처지가 울안에 연꽃을 심어 놓고 호사를 누릴 만큼



여유로워서 어슬렁거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뭔가 한량기인지 변덕이 팔죽 꿏듯 부글거려 누구들처럼 피어 있는 연꽃 심지 속에 찾았을 숨겨 놓았다가 그 기묘한 맛을 즐기느라 다도삼매에 빠진다는지, 그것도 못 되면 휘영청 달 밝은 밤에 좋아하는 친구들을 불러 들여 연못가에 한카로이 앉아 술



잔을 기울이며 꿈속 같은 이야기로 시시덕대느라 밤 가는 줄 모르는 위인도 못 되면서 단지 꽃이 좋아 감행을 한 것이었다.

때는 온 나라가 IMF다 뭐다 해서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신통한 구석이 없었다. 이럴 때 누가 돈 보따리나 지고 들어와 날벼락을 치듯 뒤집어씌우면 모를까 도대체 그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 찢득대는 기분이 생사람 잡기에 꼭 알맞았다. 그런 중에도 날이 밝으나 해가 지나 혼자 굶실거리고 지내지만 어쩌다 사람들 틈에 끼면 남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으로 나 홀로 올바른 척 목청을 울리곤 했다. 같잖은 것은 세상 각

정 도맡아 해대느라 그런지 밤낮 우거지상이었다. 어쨌든 세상은 재미가 그 언제였던가 싶게 팔다리에 힘이 쏙 빠졌다. 남들처럼 거창한 사업이 거덜이 나서 가슴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다니던 직장에서 밀려나 앞날이 캄캄한 것도 아니건만 그 무덤고 눅진거리는 날씨만큼이나 기분이 축 처진 데는 용빼는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가슴을 부리던 더위가 한 풀 꺾이는가 싶은 때가 되자 뜻밖에 심신에 활력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찾아온 자연의 손길이었다.

이른 봄 구해다 심은 연잎 사이로 쪽 빠진 꽃대가 여기저기 밀고 올라오는 것이었다. 솔직히 당년에 꽃대가 저토록 힘차게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것이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너무 신기하고 좋아도 기가 막히게 돼 있는

지 그건 모르지만 세상을 다 차지한 제왕의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나도 이제는 있는 대로 잘난 체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았다. 그 연뿌리를 얻기 위해 환히 들여다보이는 간사를 떼고 코밑에 진상을 하느라 치사하게 굳 생각을 하면 창피스럽기도 하지만 해 볼 만하다 생각하니 회심의 미소가 새어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이 번성하는 날이면 때부자가 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이거 세상에 없는 품종인데 특별히 생각해서 분양하는 것이니 갖다 잘 키우라고 큰 소리 치면서 받아먹을 것 죄 받아 챙기면 그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았다.

그 언제 적인가 겨울 국화를 심으면 큰돈이 생긴다기에 수십 평 온상을 짓고 겨울 내내 연탄불과 씨름을 하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동국冬菊을 키운 일이 있었다.

마음먹은 대로 국화는 씩씩하게 자라 주고 귀여운 내 새끼 눈망을 같은 꽃봉오리가 온상 가득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저것 한 송이에 얼마씩이라고 머리를 굴려 보니 엄청난 액수! 학교 선생 때려치우고 국화나 길러 돈방석에 앉자는 생각으로 나날이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던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줄이야... 난데없이 겨울 폭우가 쏟아져 축대가 무너지고 그 밑의 온상이 주저앉는 바람에 멸절한 하늘에 대고 주먹질을 해댔다. 그나마 몇 송이 남은 것도 꽃값이 폭락을 하고 말아 예쁘기는커녕 원수처럼 보였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수십 년 전 부리던 객기를 다 늙은 지금에 되살려 또다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니 구제불능의 속물 덩어리라는 사실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고만 셈. 아이구 이를 어쩌면 좋을까?



마침내 눈부시게 흰 연꽃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토록 어엿하게 티 없이 하늘을 배경으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격으로 고고하게 이 티끌 세상을 불쌍히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여하간 신비롭기 이를 데 없었다. 저 정교하기 짝이 없는 황금꽃술! 왕관처럼 권위와 품위를 갖춘 황홀함, 그것은 생명의 향기로 넘쳐나는 천상의 현신이었다. 향기는 놀라웠다. 그것은 외관에 못지않게 신선하고 그윽했다.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은 순화되는 것 같았고 굳어진 것만 같았던 모든 감각기관이 환희로 물결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때마침 어디서 날아왔는지 꿀벌 한 마리가 꽃 속으로 찾아 들었다. 꽃술은 이 작은 곤충의 입맞춤에도 바르르 떨고 있었다. 참으로 오묘한 자연의 이치, 마치 천수백도 불길 속에 녹아 하늘거리는 도자기의 속살처럼 술 속에 감싸여 녹아 태동하는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었다. 너무나 연하고 투명한 연밥은 생명의 원형이었다. 아, 그 속에서 뿜어 나오는 향기! 사람을 당장 뇌쇄시킬 만했다. 우리 같은 저속한 감각기관을 이토록 흔들어 놓을 때야 그 안에 감춰진 깊고 높은 뜻은 어떠하랴? 나는 나도 모르게 뇌까려댔다. “전생에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이렇게 향기로운 속에서 살지?”

울안 가득 고여 있는 연 향기를 가슴이 부풀도록 들이마시면서 하찮은 연못 몇 평이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를 인식한 후 타인을 인식할 수 있다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지난 주 거리를 지나다가 높은 축대 위에서 늘어서 핀 영춘화를 보았습니다. 맑고 연한 하늘을 배경으로 노란 꽃들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봄바람도 살랑거리는 그 순간 문득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행복을 느끼세요? 행복했던 3개의 상황을 적어보세요.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 즉 오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느낌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느낌에 휘둘러 행동하는 일이 줄어들

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치솟아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화가 자신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구나', '화가 솟구치는구나', '화가 가라앉는구나...' 등을 바라볼 수 있다면 화로 인하여 제어되지 못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의 날개 것처럼 쉽 없는 훈련이!

공감대화에서는 자신의 느낌을 세밀히 인식하고, 말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미안한지, 겸연쩍은지, 떳떳한지, 자랑스러운지, 날아갈 듯 기쁜지, 흐뭇한지, 편안한지 등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좋다, 나쁘다, 편찮다, 싫다, 그저 그렇다' 라는 애매한 표현보다 세밀한 표현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자신을 잘 인식해야 그 후 타인을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적은 행복했던 3개의 상황을 타인에게 말해보십시오. '제가 이럴 때 참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라고 말하면 스스로도 한 번 더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행복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계있는 다섯 사람의 행복할 때를 짐작하여 적어보세요.

이름: _____ 관계: _____

행복할 때: _____

다섯 사람의 행복할 때를 적으려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가볍고 편안한 시간이셨나요? 상대가 행복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때에 '지금 행복하시죠?'라고 질문하세요. '네~'라는 답을 들으신다면 서로 행복 안에서 소통하는 경험을 맛보실 것입니다.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면서, 상대의 느낌을 짐작해서 말해주는 것도 해보십시오. 긍정의 느낌이든, 부정의 느낌이든 느낌을 인식하고 나누는 것이 공감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감대화를 배우고 있는 남자 대학생 2명이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면서 나누는 대화를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상황, 느낌, 바람, 부탁을 다 배웠고, 잘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잘된 대화입니다만, 수정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읽고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오늘도 서든어택 게임하자.’

‘난 오늘만큼은 롤 게임을 하고 싶어…….’

‘난 롤을 못해서 재미없어……. 그냥 서든어택 하자.’

‘항상 PC방에 오면 네가 하고 싶은 게임만 했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 여태까지 내 의견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섭섭하고 서운해. 그리고 내 돈으로 PC방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못해서 아쉬워…….’

‘아, 그랬구나? 계속 네 의견을 거절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도와줄테니 오늘만큼은 내가 원하는 롤게임을 해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나?’

‘알겠어.’

‘섭섭하다, 서운하다, 아쉽다, 미안하다’ 라는 다양한 느낌이 표현되었습니다. 상대의 말에 ‘아, 그랬구나?’ 라고 ‘앵무새 되어 공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앵무새 되어 공감하기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문장 끝에 ‘~구나?’의 질문형으로 말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기 어려운 경우 약식으로 ‘그랬구나?’로 함.)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오늘만큼은 롤게임을 해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고, 마무리는 질문형으로 ‘그래줄 수 있나?’입니다.

수정할 곳은 ‘무시당한다’는 표현입니다. 수동의 표현은 상대의 의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시당하다, 모욕당하다, 박탈당하다’ 라는 표현보다는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기를 원한다, 갖기를 바란다’ 라는 긍정의

표현을 써야합니다. 무시당한다는 문장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아서 섭섭하고 서운해.’ 라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 스님의 편지 ‘말과 침묵의 책머리 글에는 ‘사람의 생각을 주고받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칫하면 또 하나의 소음으로 전락될 위험이 따른다. 자기 사유를 거치지

않고 밖에서 얻어듣거나 들어오는 대로 다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의 체로 거르지 않는 말은 사실 소음이나 다를 바 없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잔소리로 들린다면 이미 소음일 것이다. 소통하지 않는 말들도 소음의 하나일 듯……. 사유와 침묵의 체로 거른 말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봄 날 되십시오.

2017년도 (사)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 선정 결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대학생들의 재능과 전공을 살려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개발하고, 선행의 실천을 통해 삶의 지혜와 경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생 봉사 지원 사업 ‘나누는 기쁨’을 공모하여 이화여대와 연세대 연합 봉사 동아리 ‘나눔미’가 기획한 나눔 공부방, 소망 탁아방 아동들의 인성개발을 위한 ‘함께 나누는 기쁨, 더해가는 행복’ 과 경희대 봉사 동아리 ‘미라클’이 기획한 동대문구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희망의 집 고치기’를 선정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맑고 향기롭게모임과 함께 공동으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정 스님의 가르침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우리 주변에 조용히 전파될 수 있도록 회원님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월 결연 대상자 - 한영순(가명)

**폐지를 줍고 싶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작년까지도 폐지를 주워 생활했지만 올해는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 몇 십년을 사용했으니 고장 날 만도 하지. 가기 전까지만 버터줬으면 했는데……. 이놈도 주인 잘못만나서 고생케나 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무릎에 심어진 인공관절이 마치 오랜 벗이라도 되는 듯 툭 던진 어르신의 말씀에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생계에 대한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워야 했던 한영순(가명)어르신의 연세는 올해 95세, 고령의 나이에도 어르신은 왜 일을 놓을 수 없었을까요?

경기도 가평 태생인 어르신은 일

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란 시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어르신은 정신대 징집을 피해 15세 어린 나이로 시집을 갔습니다. 딸 2명과 아들 1명을 낳아 길렀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절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온갖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강원도 속초에 집을 몇 채를 사서 민박을 운영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께서 60세에 돌아가시고 난 후 큰 사위가 사업을 하겠다고 집문서를 들고 나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르신은 전 재산을 잃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어르신은 둘째 딸에게 잠시 의탁했으나 가난한 둘째 딸의

집에서 계속 있을 수 없어 지인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어르신 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가난하지만 수급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자식이 있어 수급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상위 계층으로 월수입은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지원받은 24만원이 월수입의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월세 10만원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어르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고령의 몸이지만 하루 3~4천원의 돈을 벌기 위해 폐지 줍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어르신의 의지와는 달리 폐지를 줍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릎에 있는 인공관절이 제 기능을 하

지 못해 무릎 통증이 심해진 까닭입니다. 병원에서는 고령의 나이에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폐지조차 주울 수 없게 된 어르신은 하루라도 빨리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어르신에게 희망을...

한영순 어르신의 가장 큰 고민은 줄어든 수입입니다. 이에 새삼스럽고 향기롭게는 어르신의 월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이 생계를 이어 갈수 있도록 생계비 20만원(월세 10만원, 기타 생활비 등 1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건디는 어르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마를 닮고 싶습니다



한 중년 여인이 추운 겨울날,
어느 포장마차 앞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엄마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엄마는 예전에 포장마차 장사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여인이 엄마가 일하는 골목 앞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바빠서 그런지 엄마는 한 번도 앉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사람이 줄어들었을 때 째! 하고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놀라면서도, 추운데 뭐 하러 나왔냐고 어서 들어가라면서 손
을 잡았는데 엄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겨울에 바깥에서 종일 일을 하니 손발이 늘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집에서도 늘 장갑을 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 들어오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추운 데서 일해요? 따뜻한 데서 일하면 되잖아요?”
“막내야 여기 와서 야식 먹는 사람들 얼굴 봤니?”

엄마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으니,
엄마는 ‘그것 보라’ 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포장마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퐁퐁 언 얼굴로 오지만 따뜻한 국
물 한 그릇만 먹으면 얼굴에 미소가 생겨난단다. 그러면 내가 좋은 일
을 한 것 같아서 텅달아 내 기분도 좋아지거든. 그 따스한 표정에 추위
도 모르게 된단다.”

여인의 엄마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함께 하면 추위가 줄어들다는
것을 엄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인은 포장마차 앞에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닮고 싶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문득 과거의 익숙한 한 사람을 닮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 가족들의 식사를 차려주던 어머니를 닮아 부지런히 아침을 맞이하지
만, 실수투성인 저를 발견합니다.
무뚝뚝했지만 누구보다 자녀들을 가슴으로 사랑하셨던 아버지를 닮아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
해 보지만, 어색하기만 한 저를 발견합니다.

오늘은 왜 이리 당신이 보고 싶은지요.
늦었지만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별

글 • 김동인

무슨 글자를 보느냐고 옥편을 뒤지다가 별 성자 자를 보았다. 성자를 보고 생각하는 동안 문득 별에 대한 정다움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별을 못 본지 얼마나 오래인지 별의 빛깔조차 기억에 희미하다. 보려면 오늘 저녁이라도 뜰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 있을 것이 건만.

밤길을 다니는 일이 적은 나요, 그 위에 밤길을 다닌다 해도 위를 우러러보는 일이 적은 데다가 고층 거루가 즐비하고 전등불이 휘황한 도회지에 사는 탓으로 참 별을 우러러본 기억이 요연·然하다[아득하다]. 물론 그사이에도 무의식적으로 별을 본 일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별을 본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보았겠는지라 별의 의

식한 기억은 까맣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여름날 뜰에 모여서 목청을 돋우며 세어 나가던 그 시절의 별이나 지금의 별이나 변함은 없을 것이며, 그 뒤 중학 시대에 음울한 소년이 탄식으로 우러러보던 그 시절의 별이나 지금의 별이나 역시 변함이 없을 것이며, 또는 그 뒤 장성하여 시時적 흥취에 넘친 청년이 마상이 [거룻배 따위의 작은 배]를 대동강에 띄워 놓고 거기 누워서 물결 소리를 들으면서 탄미하던 그 별과 지금의 별이 변함이 없으려면. 그리고 그 시절에는 날이 흐려서 하루 이틀만 별이 안보이더라도 마음이 조조躁躁하여 마치 사랑을 따

르는 처녀와 같이 안타까워했거늘 지금 이렇듯 별의 빛깔조차 잊어버리도록 오래 별을 보지 않고도 그다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 나가는 이 심경은 어찌 된 셈일까.

세상만사 대하여 이젠 흥분과 감동을 잊었다. 혹은 별을 보고 싶은 감정이 생기지 못하도록 현대인의 감정이란 뻑뻑하고 기계적인 것인가. 지금도 별을 우러러보면 옛날의 그 시절과 같이 괴롭고도 즐거운 감동에 잠길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전등만큼 밝지 못한 것이라고 경멸해 버릴 만큼 마음이 변했을까.

지금 생각으로는 오늘 저녁에는 꼭 다시 별을 우러러보려 한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그냥 이 마음이 그대로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날

이 춥다는 핑계가 있고 그 위에 오늘이 음력 팔일이니 그믐별이 아니냐고야 무슨 흥취가 있겠느냐는 핑계도 있고 하니 어찌 될지는 의문이다.

보면 새고 안 보면 문득 솟아오르던 별. 저 별은 장가를 가지 않는가 하고 긴 밤을 지키고 있던 별. 내 별 네 별 하여 동생과 그 광휘를 경쟁하던 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 다시 잠 못 자는 한밤을 별을 우러러보며 새우고 싶다. 그러나 현대의 생활과 감정이 너무 복잡다단함을 어찌하라. 별을 쌀알로 보고 싶을 터이며 달을 금덩이로 보고 싶을 테니까 이런 감정으로는 본다면 아무 감흥도 없을 것이다.

〈조선문단〉 1935년 2월

* 출처 :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역음

김동인(1900-1951) 소설가

호는 금동(琴童), 금동인(琴童人), 춘사(春士). 평안남도 평양 출생. 1919년 조선 최초의 순문학 동인지(창조)를 발간하며 작품 활동을 한 이래 이광수와 함께 조선 근대문학 형성에 중요한 역할 담당했다. 해방 후 가산을 탕진한 후 극심한 생활고와 악물 중독에 시달리다가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명면했다. 〈배따라기〉 〈감자〉 〈광염소나타〉 등의 단편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고, 역사장편 소설로 〈윤현궁의 봄〉 등이 있다. 이광수론으로 쓴 〈춘원 연구〉는 중요한 문학 연구 자료다.

헨리 소로우 에세이집 『월든(Walden)』

글 • 윤부혁(작가)

헨리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12~1862.5.6)는 19세기 미국의 한 시대를 풍미한 사상가·수필가로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출생이다. 하버드대학 졸업 때의 연설 〈상업 정신〉에서는, 1주일에 하루만 일하고 나머지 6일은 사랑과 영혼의 안식일로서 자연 속에 잠겨 자연의 숭고한 계시를 받으라고 말하고, 일생 동안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였다. 에머슨의 감화를 받은 그는, 초절주의(超絶主義, Transcendentalism)를 친히 실천했으며, 인간이 참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자연을 벗삼아 생활하였다.

그는 기업인 연필제조사업 외에 교사·측량·목공 등에 종사했는데

일정한 직업 없이 콩코드에 사는 초월주의자 R.W. 에머슨과 그 주변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매일의 관찰과 사색을 많은 양의 일기로 남겼다.

한편, 그의 어린 시절 온 가족이 노예제에 반대하여 1846년 7월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는데, 이 체험이 뒤에 발간한 저서 〈시민 불복종〉(1849)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개인의 양심에 바탕을 둔 불복종을 역설하고 <전혀 지배하지 않는 정부가 최상의 정부이다〉라고도 주장하였는데, 뒤에 M.K. 간디와 M.L. 킹목사에게 영향을 주었다.

소로우의 주요 저서로 『콩코드 강과 메리마크 강의 1주일』(1849) 『월든—숲속의 생활』(1854)이 있다. 그는 구체적 사물을 세밀하게 관

찰하였는데, 사물을 단순히 사실로서만 보지 않고 월든 호(湖)에 대하여 “이 호수가 하나의 상징으로서 깊고 청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나는 감사하고 있다.” “내가 호수에 대해서 관찰한 것은 윤리적으로도 진실이다.”라고 역설한 것처럼 구체적 사물의 저편에 있는 보편성을 알아내려 애썼다. 사후에 〈메인주의 숲〉(1864), 〈케이프코드〉(1865), 〈캐나다의 양키〉(1866) 등의 여행기가 간행되었다.



나는 의도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필수적인 요건만 충족한 채 살아도 삶이 가르쳐 주는 진리를 배울 수 있지 알고 싶었다. 또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었다. 삶이란 소중한 것이기에,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념한 채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깊이 있게 삶의 정수를 빨아들

이고 싶었다. 삶이 아닌 것은 모두 파괴해 버리고 강인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아가길 바랐다. 낮을 크게 휘둘러서 풀을 바싹 베어내어 삶을 구석으로 몰아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압축해 버린 다음, 삶이 천박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천박함을 전부 속속들이 알아내어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또는 반대로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아내어 다음 번 여정에서 그 참모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 본문에서

꼭 사과나무나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한단 말인가? - 본문에서

숲속에는 모두 다른 걸음들이 있다. 개나리나무와 떡갈나무는 보폭이 다르다. 신의 기슭에는 언제나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아직 겨울이 머물러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같은 산인데 두 계

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자연의 숲에서는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로우의 주 저서인 『월든』에는 주옥같은 에세이 18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저자의 호반생활에서의 자유롭고 지혜롭게 여가를 누리려는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이 글들을 통해 노동과 여가에 대한 그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밝히고, 되도록 단순하고 자족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자신의 실험적 생활을 보여준다. 또한, 이 책에는 작은 동물들과의 교감,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숲과 호수의 소리와 경치 등 월든 호반에서의 다양한 생활을 그려내면서 단순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해가는 기쁨을 보여준다.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실제로 하루하루 살았다는 점 때문에

이 책이 유명한 것도 사실이지만 직설적이고 사실적이며 세련된 문체야말로 『월든』을 고전의 명작으로 끌어올렸다.



소로우가 집거를 시작한 것이 1854년이니, 벌써 150년 전에 소로우는 물질만능주의를 거부하고 지극히 소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였다”는 소로우의 말은 사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를 쌓아가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 많은 성찰을 안겨준다.

소로우의 주요 저서 『월든』은 세계문학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책으로 불린다. 소로우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안정된 직업을 갖지 않고 측량 일이나 목수 일 같은 정직한 육체노

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 책은 대자연의 예찬인 동시에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며,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으려는 한 자주적 인간의 독립 선언문이기도 하다.

1852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월든』은 당시에는 별다른 시선을 끌지 못했지만, 오늘날 19세기에 쓰인 가장 위대한 책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독자에게 읽혔고 지금도 읽고 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스님 등이 즐겨 읽었던 책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무소유의 소박하고 검소한 삶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소로우의 사상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낸 『월든』은 출세지상주의와 배금주의의 헛된 환상에 시달리는 현대

의 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과 위안을 안겨준다.

* 초절주의 : 19세기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생긴 사상운동. 독일의 관념론(특히 칸트)의 영향과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독자적인 일종의 리얼리즘이다. 문학에서는 에머슨이 1836년에 발표한 <자연론>에 이 주장이 잘 밝혀져 있다. 인간의 직관력·상상력·내재신(內在神)에 의해 움직이는 자연, 구제를 필요치 않는 인간성 자체의 존엄성, 창조와 예술 세계의 자유, 인간성의 우수성, 인류와 우주에 대한 낙관적 태도, 일상 경험의 감각을 초월하여 직관에 의해 진리를 파악한다는 신비사상이기도 하다.

감동

글 • 김광석(나고야대학 교수)

많은 감동에 가슴이 벅찬 하루입니다.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온몸이 뒤흔들어 나의 눈언저리를 적시어 옵니다. 오늘 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으로 하루의 감동이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에 감사합니다. 어찌 이 감동을 글로써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나에게 하루하루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이 감동을 감히 제가 다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위인도 못됨은 물론이요, 지금까지 제가 해야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업들은 솜털만큼도 털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다니…….

잠자리에 일어나 눈을 뜰 때 내 생애 한 페이지가 주어짐에 더없이

감동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눈에 들어오는 햇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손으로 손수 해 먹을 수 있는 아침, 입으로 들어가는 밥알 하나까지 신에 대한 감사함은 이렇게 감동으로 전해 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인종을 넘어선 철학들은 굶주린 나를 살찌우게 해줍니다. 오늘도 저 멀리서 오신 선인의 노고를 나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늘 고생하는 아내, 비록 아는 것은 많지 않으나 미련스러울 만큼이나 소처럼 일만 하는 내 아내. 때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이 또한 나

의 아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말도 하고 선물도 하고 사랑도 줍니다. 하지만, 난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저 건강한 몸 하나 있어 아내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기며 살아야 한답니다.

오늘 저녁, 난 감동을 주는 텔레비전 방송을 우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선물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내 아내를 떠올려 봅니다. 가엾은 그가 생각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난 그 말도 못한 채 지금 텔레비전을 어디 보고 있느냐고 난데없이 물어봤습니다. 한국 텔레비전을 본다고 합니다. 일본 방송을 틀어보라고 했더니 불행히도 내가 보는 방송은 그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

다. 최소한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기를 바랐는데 역시 불발로 끝났습니다. 이런 아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한 꿈이 실현될 때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바로 본연의 일에 전념했습니다. 어느덧 몇 시간이 지났고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다시 텔레비전을 켜고 황홀한 클래식을 들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나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 모든 것들에 한없이 한없이 감사를 전합니다. 나에게 과분할 정도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없는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신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옆

드려 감히 절을 올립니다. 남은 생을 세상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신에 대한 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자연에 대한 감동이 삼금을 올립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도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내 마음을 글로서 남길 수 있는 것 또한 누군가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어둠이 깊어 가는데도 밝은 등불로 나를 비춥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불효자에게 이렇게나 넘치는 행복을 주시니 어찌해야 합니까, 살아생전 제대로 사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리지 못하고 보내야만 했던 이 불효자가 이렇게나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까.

가신 후,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두 발로 걷는 것도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것도 내가 두 귀로 듣는 것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의 것이며 혹시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 또한 아버지의 것입니다.

덜 쓰고 덜 버립시다

음식물 쓰레기 1kg을 줄이면 나무 322그루를 심는 효과가 따라옵니다.

일상의 변화를 통한 기적이자, 하나뿐인 지구에 빛진 인류가 미래를 위해 돌려줄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894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경제적 효과에 달합니다.

온국민이 연간 20%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면, 20~30년생 소나무 3억 6,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이어집니다. 승용차 47만 대의 배기가스 감소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국인의 가계 소비 중 가장 큰 문제는 음식 소비가 높다는 데 있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2013)에 따르면 해마다 전 세계 음식 중 30%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토회 회원들은 오래전부터 쓰레기 제로 운동을 매일, 매주, 매달 점점 사항을 정하여 쓰레기를 줄여 나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육식보다 채식하기, 식사는 적당하고 알맞게 먹기, 생쓰레기는 말려서 배출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배출하기, 일회용품 구입하지 않기, 종이 재사용하기, 녹색상품 구매하기 등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들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지요? 혹시 귀찮아서 잠시 실천하지 않고 계셨다면,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덜 쓰고 덜 버리는 일이 바로 맑고 향기로운 운동의 첫 걸음이 아닐까요?

월간 맑고 향기롭게 원고 모집 안내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 법인 사무국으로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채택될 시 귀중한 책 한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보낼곳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이메일 : clean94@daum.net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일요특강 - 5월 28일(벚꽃 일요일) 오전 11시 / 설법전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산소 같은 캘리그래퍼 장천(章川) 김성태



세상에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유일무이(唯一無二)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명품(名品)'이라고 합니다.

“캘리그래피의 매력은 세상에 하나뿐인 글씨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글자를 비슷하게 쓸 순 있어도, 똑같이 쓸 순 없어요.”

5월 28일 일요특강에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친숙한 <불멸의 이순신>, <전설의 고향>, <진품명품>, <한국인의 밥상>, <대하드라마 장영실> 등의 방송 타이틀을 만든 KBS 아트비전 영상그래픽팀 디자이너로 재직 중인 캘리그래퍼 김성태 작가님을 초청하여, 법정 스님 1주기 추모전 전시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대중과 소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캘리그래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강연에 참석한 분에 한해서 이름을 써주는 행사도 진행되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숲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숲과 시골 마을(집성촌)의 정취를 찾아서

1. 5월 숲기행 일정

- 5월 13일: 경북 의성군 수정사, 경덕왕릉, 빙혈-산운마을(영천 이씨 집성촌)

2. 예정지(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월 10일 : 경북 안동시 봉정사, 천등산-웅천마을(진주 강씨 집성촌)
- 7월 8일 : 전북 고창군 선운사, 왕버들 숲, 고창 고인돌군-남창마을(진주 강씨 집성촌)

3. 참가방법

- 대 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만 65세 이하
- 접 수 : 숲기행을 다녀온 후 월요일부터 중앙 사무국으로 선착순 42명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 준비물 :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우천 예상시 우산 준비)
- 참가비 안내 :
 - 일반참가자(비회원) : 45,000원
 - 할인 혜택(매희향기롭게 후원회원&정기 봉사자, 길상사 신행단체회원, 길상사 신도증 발급자) : 35,000원
 - 점심식사 포함(시골 마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 식사를 탐방 지역에서 해결합니다.)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매희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 출구 :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5. 문의 및 접수처

중앙모임 02-741-4696



법정스님·길상화보살의 '무소유 정신'을 계승한 2017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법정스님의 무소유정신과 대원각을 수행처로 무주상보시한 길상화보살의 깊은 뜻을 기리기 위해 24번째 이어져오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4월 14일(금) 길상사 설법전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수도권 30명, 광주 6명, 전남 1명, 전북 1명, 대전 1명, 경남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교 46명을 선정하여 한 해 동안 수업료와 학교 운영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모임은 1994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645명의 학생들에게 9억5,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 회원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

를 비롯하여 KTX 나눔이회, SJ파워 사랑봉사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반찬 나눔은 매주 500여 가구에 밑반찬 2종류, 분기별 농협상품권(3만원) 지원, 명절(설날, 추석),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 물품 후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 ※ 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뜻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 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자원 활동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을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 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 주신 용품은 '맑고 향기로운 가게'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1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향기롭게 강연회 : 5월 28일(일) 나의 삶, 나의 길 - 김성태 작가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4,18,19,25,26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1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1,8,15,22,29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14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

(23일)/오후 1시 30분/다라니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토요일(20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매주 화요일 (2,9,16,23,30일)/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첫마음(소식지)발송 : 매일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로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술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감자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5회차 기도가 3월 16일(목)에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 일시 : 5월 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극락전
- ※ 관불의식은 극락전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부처님오신날 제18회 길상음악회

- 일시 : 5월 3일(수) 오후 7시
- 출연 : 안치환, 박창근, 시즌오브소울
- 장소 : 길상사 트락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5월 6일(토) 오후 6시~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 다라니기도 시간 정정 안내 - 저녁 6시

춘계관음기도 회향

- 일시 : 5월 9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5월 13일(토) 오후 8시 ~ 5월 14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5월 13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5월 19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5월 26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다라니기도 시간 및 저녁예불 안내

지난 4월 1일부터 하절기로 인해 저녁예불이 오후 7시로 변경되었지만, 다라니기도가 있는 첫째 토요일에는 저녁예불과 다라니기도를 오후 6시에 시작하오니, 다라니 기도에 동참하시는 신도님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5월 6일(토)	저녁 6시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회향	5월 9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보름기도	5월 10일(수)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5월 13일(토)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5월 19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5월 26일(금)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계란판 그림 전시회 “인연과 운회”



한 때는 초록의 나무였고,
한 때는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고급종이였던 계란판!

운회(輪廻)의 굴레를 돌아
다양한 예술가들의 인연으로
작지만 의미있는
'계란판 그림 전시회'를 가집니다.

2017년 5월 1일(월) ~ 7일(일)

- 장소 : 설법전
- 기획 : 수채화 공작소
- 협찬 :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길상사 소식
법정스님의 법문 영상, 글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
바일 버전과 앱(APP)을 개발 구축하였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 → 구글 play스토어 → 맑고 향기
롭게 검색 → 다운로드 → 설치**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이용과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마음·세상·자연’
 제 1회 **사진 공모전**

응모기간 2017. 5. 10(수) ~ 8. 10(목)

공모주제 길상사내의 맑고 향기로운 수행,
 나눔, 자연, 사계절 사진 공모전

공모자격 제한없음

공모기간 2017년 5월 10일 ~ 8월 10일까지

입상작 발표 8월 30일(예정)

접수방법

-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 (clean94@hanmail.net)
- 1인 3작품 이내

출품규격

- 디지털 사진 / JPG 이미지파일로 2,000만 화소 이상(크기는 5MB 이상)
- 필름 사진은 스캔 후 응모 가능

유의사항

- 시상작은 공모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 및 간행물 발간, 홍보 자료 제공 등 복제,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작품으로 인한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주최 맑고 향기롭게 협찬 길상사

사진 공모전과 관련된 세부 내용과 참가신청서는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

시상내용

종류	인원	상금액
대상	1	상장 및 상품권 150만원
최우수상	2	상장 및 상품권 50만원
우수상	3	상장 및 상품권 30만원
장려상	6	상장 및 상품권 20만원
입선	30	상품권 3만원